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을 위한 정책개발에 매진할 터

— 충남발전연구원의 역할 재정립과 경쟁력 강화해야

박진도 |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지난 8월 2일 충남발전연구원에 취임한 이후 두 달이 지나가고 있다. 30여년 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 온 나로서는 충남발전연구원장을 맡아 달라는 전혀 뜻밖의 제안을 받고 적지 않은 부담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지만, 감히 원장직을 맡기로 한 이유는 연구원 이사장인 안희정 도지사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충남도정의 방향과 관련해서 지역주의 극복, 저출산·고령화시대 대비를 위한 사람투자전략, 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한 당당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지방의 내적·자립적 성장, 농정혁신과 농업발전 등을 중요한 과제를 제시하면서 충남의 행복한 변화로 가장 모범적인 지방정부를 만들어 충청남도를 대한민국의 단순한 지리적 중심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명실상부한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안 지사의 포부와 의지에 힘을 보태고 싶어 결심을 하게 됐다.

그간 연구원장으로서 충남도정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의 절름발이 지방자치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도와 시·군 간의 올바른 분권이 반드시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졌다. 재정과 권한이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현행 지방자치 하에서 민선5기 충남 도정의 비전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온전하게 달성하기에는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올바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함과 동시에, 충남도와 시군 그리고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건설에 매진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가 ‘행복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과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진보적인 좋은 정책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구체적 성과를 낳아야 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충남도의 싱크탱크인 ‘충남발전연구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충남발전연구원이 충청남도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일이다.

연구원은 단순히 충남도와 시군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좋은 정책을 생산하

고 그것을 도정과 시·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선도적 연구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수탁연구를 통한 돈 벌이에 연구원 에너지의 대부분을 투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라도 충발연을 수탁연구기관이 아닌 창조연구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둘째, 연구원 스스로의 연구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은 훌륭한 전임 원장님들과 모든 연구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러 제약 속에서도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룬 게 사실이다. 이제 연구원은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충청남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철저한 자기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과 개인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 각자가 주인이라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셋째, 충청권의 시민사회, 대학, 언론, 산업계 등과 협력하며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지역 포럼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일이다.

분권형 사회에서는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관련 집단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민주화와 지방분권이 발전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정책수립과 그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정책연구기관은 이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지식 네트워크 매니저’로서의 역할이다.

넷째, 충청권 밖의 연구·정책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충남발전연구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지역의 대표적 연구기관이라는 평가에 안주하여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히 외부의 역량 있는 정책 집단과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 현재 연구원의 인력과 재정적 여건이 크게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충발연 연구원 1인당 연구건수는 전국 15개 지방 연구원 중 단연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양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민선5기의 출범으로 우리 충남에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충청남도가 행복한 변화에 성공하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중심 역할과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 연구원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린다.